

<2018년 9월 4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전해 주겠습니다.

1. 하나님은 ‘뜻’이 있으면 도우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주신다.
2. 하나님은 ‘뜻’이 아니면, 여건을 엮어 가시며 트신다.
3. <선생>도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안 가게 되도록 여건이 들어졌다. 후에 보니, 누가 나를 안 만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곳에 못 가게 하신 것이었다.
4.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뜻>이 아닌 것은 트시고, 혹은 <뜻>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다른 하나를 들어서 안 되게 하신다.
5.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막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여건을 들어서 막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 막기도 하신다. <사랑하는 자의 말>은 듣기 때문이다. 일생을 두고도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신다.
6.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여건을 들어서 막으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막느냐? 왜 이러느냐?” 하면서 상대와 싸우기도 한다.

7. 어떤 계획이 있든지, 혹은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려는데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트신 것이다. - <하나님이 트실 때>는 ‘사람’을 통해 트신다. 이것을 깨닫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
8. <자기>가 겪어 보면, ‘아,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셨구나.’ 하고 그제야 깨닫고 안다.
9. 깨닫고 알았으면, 반드시 ‘막은 자’와 여건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 이것이 아주 큰 것 중에 하나다.
10. 역사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틀고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해야 된다.
11.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갈 때는 형 에서가 쫓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함으로 인해 가게 됐다. <때>가 돼서 야곱이 가야 될 때에 이 같은 일이 있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외가로 갔다고 푸는 것도 맞지만,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지 않았어도 야곱은 외가로 가야 된다. 가서 결혼해서 사랑도 이루고, 또 양 떼를 얻어서 경제 축복도 받고, 성장하고 출세해서 돌아오는 것이다. 야곱에게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 -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풀어야 된다.
12. <선생이 해외를 나갈 때>도 그러했다. 누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사건이 터지지 않았어도 나가야 했다. 그러나 <반대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건이 터져서 해외로 도피했다고 한다. <야곱>은 도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외가로 가는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다. - 항상 이같이 생각해야 된다.

13. 선생은 이미 1999년도가 되기 10년 전부터 “나는 해외로 간다. 1999년도에 해외로 간다.” 하고 많이 설교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때 해외로 도피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는데, 그때 사탄이 사람을 쓰고 역사한 것이다.

14. <에서>도 지독하게 나쁜 악질의 사람은 아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 짓’ 을 한 것이다.

15.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잘 해석해야 된다.

16. 하나님은 항상 ‘뜻이 있는 곳’ 에 함께해 주신다. 왜? <뜻>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들>에게 ‘A급’ 으로 도우시며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B급’ 으로 도우시며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막고, 틀고, 도우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신다.

17. <축복받는 땅>도 ‘축복을 받는 기간’ 이 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곳>이 ‘축복받는 땅’ 이 된다.

18. <야곱>은 ‘축복받는 땅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였다. 그 고향이 <축복의 땅>이었다. 그러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외가로 가게 되니, 다시금 그곳에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 고로 그곳이 또 ‘축복받는 땅’이 되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세계’가 되었다.
19.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시며 역사하신다.
20.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아버지 ‘이삭’이 조건을 세우고, 그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조건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그같이 축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선조의 공적>을 보고서도 도우신다.
21. 하나님은 <후대에 뜻이 있을 때>는 ‘할아버지 때’부터 역사하신다. <선생의 할아버지>도 택함을 받고 한 나라의 왕을 모실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다 국가에 큰 사건이 일어나니, 할아버지를 이곳 ‘월명동, 하나님이 택한 땅’으로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결국 보면, 하나님은 이같이 섬세하게 역사하셨다. 할아버지가 이 골짜기로 왔을 때는 금이 많이 났기에, 금을 캐서 돈도 벌고 집도 사서 월명동에 터를 잡게 됐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내 가족들만 남은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이 선조 때부터 역사하신 것이다.
22. <야곱>도 특히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확실히 역사를 하셨다.

23.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 늘 ‘순리적’으로 하신다.

24. 대개 할아버지 때에 잘되고, 또 손자 때에 잘된다. <구약>이라는 ‘할아버지 때’에 잘되게 역사하시고, 그러다가 <신약>이라는 ‘아버지 때’가 되어 역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성약>이라는 ‘손자 때’에 잘되게 역사하셨다. 선생의 할아버지가 왕을 모시고 정치를 했고, 한 대를 띄워서 선생이 ‘하늘 정치, 하나님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정치를 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

25. <법관>이 되려면 ‘법’을 확실히 알아야 되듯이, <공무원>이 되려면 역시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뜻을 펴는 자>는 하나하나 ‘시대에 해당되는 것들’을 알고 깨닫고 터득해서 행해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의 세계>를 알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겠습니다.

26. <월명동>은 ‘축복의 땅’이다. <선생>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축복을 받았다. 복음의 역사를 펴기 위해 나갈 때는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나갔고, 20년 동안 전반전 역사를 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외국으로 나갔다. 월명동에는 신부가 없으니 서울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며 신부를 찾았고, 그리고 또 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간 것이다. 한국에는 ‘한국 사람’만 있지, ‘외국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니, 한

국을 떠나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왔다. 야곱의 고향에는 신부가 없으니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하셨다. 이같이 월명동에는 신부가 없으니 떠난 것이다. 나가서 <전도의 씨>를 뿌리고, ‘양떼, 소떼’를 몰고 들어온 것이다. 이같이 <시대 역사>를 펴 갔다.

27. <월명동>은 ‘하나님의 성전, 축복의 땅’으로서 축복을 받았다. <주>가 시대 십자가를 지고, 조건을 다 세우고 다시 ‘축복의 땅’으로 돌아왔기에 ‘생명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하늘 신부들과 같이 사는 역사’가 또 시작된 것이다.

28. 모르고 살면, 10년, 20년을 살아도 모른다.

29. 알고 살아야 된다.

30. 지구상에 누구든지 모르고 살면, ‘사탄, 마귀, 귀신’이 침범한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대로 하면,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침범하지 않는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

31. 꿈에 보니, <직사각형으로 짠 쇠틀을 달고 있는 큰 비행기>가 떠서 월명동을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적군들이 내려와서는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쇠틀에 싣고 도망갔다. 한번 가면 못 오는 세계로 데리고 갔다. 기도 굴속에도 들어가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순간 내렸다가 사람들을 싣고 떠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안

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 꿈은 ‘사탄들이 이렇게 역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모두 기도해라.’ 함이었다.

32.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 그리고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해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해야 된다.

33. <사탄>은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할 때 즐겁게 만들면서 끌고 간다.

34. 하나님은 ‘틀 것’은 꼭 트신다. <틀 때>는 ‘사람’을 통해 트시니 싸우지 말아라. 끝난 다음에 ‘왜 틀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35.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틀 것’은 트시면서 역사해 주신다. 그런데 이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36. 하나님은 무섭게 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전’을 통해 틀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신다.

37. 꼭 죽는 장소에 갔어도, 하나님이 틀어 주셔서 살게 해 주신다. 모르고 갔어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왜 재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지 말아라. ‘운전수가 운전대를 틀듯이 하나님이 트시는구나.’ 하며 알고, 하나님

게 감사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38. <운전수>가 운전대를 틀어서 ‘운전 진짜 못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길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 모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다. 고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동안 하나님이 틀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39.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게 해 주시려고 트신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서운하다고 한다.

40.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행한 행실에 최고로 더 좋게 해 주려고 한다. 뱀을 달라고 해서 뱀만 주겠느냐. 더 좋은 뱀 장어를 주지. 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용을 잡아 주지.” 하셨다. -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심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41. <아픈 자들>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신 것이다.

42. 어떤 자들은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텐데, 아파서 못 해.’ 하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간구하게 하고, 믿고 섬기게 해서 ‘지옥’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다. <죽음의 공포>, <사망의 공포>, <지옥의 뜨거운 공포>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병든 육신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육신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그 육신이 죽을지라도, <영>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보면, 아파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도 많다.

43.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꼭 죽을병에서 살리실 때도 있지만, 육신의 병뿐 아니라 <신앙이 죽어 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요즘에는 10년, 20년 만에 다시 섭리사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정말 기적이다. 이 같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주와 같이 행하신다.

44. 선생은 많은 사람을 겪어 봤지만, ‘사람이 완벽하게 되기가 참으로 어렵다. 변함없기가 참으로 어렵다. 역시 메시아 외에는 지구상에 완벽한 자가 아무도 없다.’ 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구원자는 항상 마음으로 참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45. 선지자들도 역시 모순이 많았다. 성경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 성에 안 간다고 했다. 완벽성을 벗어난 것이다.

46. 하나님은 절대 구원자와 더불어 행하시나,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막기도 한다. 그러다가 후에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나, 그때는 이미 다 끝난 후다.

47. <신약 때>도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 계셨을 때’는 그리도 반대하다가 후에 깨닫게 됐다. 그때 예수님을 다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다시 볼 수 없다. 예

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육신을 본 자는 한 사람도 없다. -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이를 말씀하신다.

48.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제는 <예수님의 산 몸>을 본 사람이 없네요.” 했더니, 하나님은 “그러하다.”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의 몸>은 본 자들이 있다. 선생은 수십 번을 봤다. <세마포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어느 때는 <목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어느 때는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물어보면 또 대답해 주셨다. 애인처럼 내 옆에 같이 계셨다.
49.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 다시 산 것이 ‘육’이 아니라 ‘영’인 것을 100% 알았다.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왜 육이 온다고 했을까? 이는 신비성 있게 종교를 이끌기 위함이었고,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고, 모르는 게 약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영’인 것을 확실히 알았다. 이치적으로 볼 때 그러하고, 성경의 근거를 봤을 때도 ‘영’인 것을 알고 확인하고 가르쳐 줬다.
50. 하나님이 숨기고 가리시면, 아무리 지구 덩이만 한 역사가 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겠느냐. <보낸 자>를 통해 역사하시니, 그는 아는 것이다. 먼저 <머리>가 알고 진행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체들>도 따라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와서 그가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가 와야 ‘성경의 인봉’을 떼기 때문이다.

51.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근본을 아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이 역사를 뒀으면 알았겠으나, 역사를 펴다 못 뒀으니 모른 것이다. <성경의 인봉을 풀고, 역사를 뒀면서 말씀을 받아 전해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는 자>가 귀한 것이다!

52. 늘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분위기로만 끝나지 말고, 진실로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53.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 그같이 해주셨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 자기가 못한 것을 너무 원망하지도 말고, ‘내가 왜 그렇게 못 했지?’ 하며 학대하지도 말아라.

54. <기회>는 많이 있다. 그러니 절대 후회하지 말고, 자기 원망도 말아라. 그러면 자기가 ‘자기 생각’을 죽인 것이다.

55. 늘 기쁨으로 좋아하며 살아라. 어제의 모든 괴로움을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깨닫고 알아라.

◎ 말씀을 안 해 주면, 크지를 않습니다.

고로 몰라서 ‘상대’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니 ‘마음’이 안 맞고 ‘대화’가 안 됩니다.

먼저 성장해야 됩니다.

키만 크고, 나이를 먹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장해야 됩니다.

◎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